

무성애자 오타쿠 : 성적 지향과 성적 취향 / butterfly

이 글은 <메타후조> 1호에 실렸던 글을 보완한 것입니다.

배경음악: magnet / minato

1. 무성애는 선택이 아니지만

무성애는 성적 지향의 한 종류로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안 끌리는 특성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현실에서 마주한 타인과 섹스를 하고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다면 스스로를 무성애자라고 여겨도 좋다. 캐릭터와의 섹스, 혹은 캐릭터 간의 섹스를 상상하는 취미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무언가를 상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식적인 활동인 데 반해, 성적 끌림은 일종의 일방적 마그넷 현상이며 안 겪기를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섹스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쁜 생각”이라고 여기고 있는 어떤 오타쿠가 있다고 할 때, 그를 무성애자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일까. 단순히 경우의 수만을 생각해보자면, 그는 마그넷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마그넷 현상에 속박된 사람일 수도 있다.

(물론 오타쿠를 성직자로 바꿔도 된다. 무성애는 금욕주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금욕주의적인 어떤 신부가 동시에 무성애자여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지 않은가?)

(오타쿠가 성직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가 자신은 성욕이 없음을 온 커뮤니티에 광고하고 다니고, 특정한 질문들에 자신은 “나쁜 생각”을 품지 않았다며 걱정적 반응을 종종 보이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사람이 어떤 말을 반복하는 데에는 대체로 이유가 있고, 특정한 문장들에 걱정적으로 반응하는 데에도 대체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질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에는 내면상의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 “너 빼졌구나?” 혹은 “흥분하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등의 표현들은 그 자체가 빼짐과 흥분을 유발하는 효과를 갖고 있음에도, 그 효과의 영향을 받은 후에 그것을 설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이는 “성적 끌림”이라는 마그넷이 가진 어떤 속성과 닮았다. 그러니까 ... 이 마그넷의 존재나 작동은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와는 다른 뜻이다. 자성이 없는 마그넷이나 자성의 방향이 다르거나 자성의 방향이 많은 마그넷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단이 일반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람의 성적 지향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으며, 오직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무성애자들의 말에 따르면, “무성애라는 용어는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누구든지 차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 좋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시로 든 그 사람을 무성애자라고 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닐까? 그가 설령 내면적으로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이끌리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저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무성애라는 용어를 차용하고 있을 뿐이니 말이다.

착한 아이에게는 상을 주겠지만, 저 문장은 나쁜 문장이니 벌을 주어야 한다.

2. 지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나쁜 아이는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도록 하고, <성적 지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파생시키는 일련의 현상들을 잠시 알아보도록 하자.

성적 지향은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다. 이는 성격과 비슷한데, <조용한 장소에 있어야 휴식을 취할 수 있다>나 <카페 등 소음이 있는 장소에 있어야 휴식을 취할 수 있다>처럼, 어떤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의 행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다. 이는 마치 오타쿠가 서로를 알아보는 과정과도 비슷하다. 주변 사람의 누군가가 오타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상대방을 오타쿠라고 판단하는가? 사람의 일부분만 가지고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한다>는 문장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것일까. 이 문장이 주로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면, 이 문장은 <상대방을 함부로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로 고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마그넷을 가진 사람이, 남이 자신을 게이일 것이라 판단하거나 무성애자일 것이라 판단하는 것을 기분 나빠 한다면, 그것은 그가 동성애나 무성애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성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마그넷을 가진 사람이, 남이 자신을 이성애자일 것이라 판단하는 것을 기분 나빠 한다면, 그것은 그가 이성애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물론, 타인이 내 성격이나 성적 지향을 사실과 다르게 판단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성적 지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한편 대단히 불행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다. 앞서 예시를 들었던 <조용한 장소에 있어야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내향성>을 <외향성>과 구분짓는 제일 중요한 특성의 하나인데, 성격심리학을 배운 적이 없는 일반인들은 <목소리가 크고 말이 활발하다>를 더 중요한 특징으로 여기고 이를 통해 타인의 성격을 판단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을 예로 들면, 카페 등 다양한 자극이 있는 장소에 있어야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목소리가 크거나 말이 활발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성적 지향을 판단하는 데에는 스테레오타입이 사용되기 때문에, 타인의 성적 지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그넷을 스테레오타입 없이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 “케이크를 좋아한다”는 무성애자에 대한 편견일까? 무성애의 아이콘으로 보라색 케이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라색이나 케이크를 좋아하지 않는 무성애자의 존재를 지우고 있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요는, 간접적 판단에 사용되는 단서들은 언제나 스테레오타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연히, 어떤 사람들은 “아예 판단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을 믿으라”고 할 것이다.

3. 코스프레의 무게

성적 지향이라는 마그넷을 성격에 빗대어 이해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편리하다. 예를 들어 성적 지향의 유동성이나 후천성이 선택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이는 성격과 마찬가지이다. 사람의 성격 또한 시간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후천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싶은 성격을 선택할 수는 없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성격과 실제 나의 성격이 다를 수 있고, 나의 성격에 어떤 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디나이얼 게이”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성적 지향에 대한 자기인식을 <성적 지향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이 둘이 모든 사람에게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는 자신을 부정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으나, 자신을 잘 몰라서일 수도 있고, <무성애>처럼 성적 지향을 나타내는 용어를 아직 접한 적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자신은 스스로를 이성애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무성애자라거나, 그 반대의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사람이 항상 정확할 수 있겠는가.

내가 말하는 나의 성격과 실제 나의 성격이 다를 수도 있다. 누가 보아도 오타쿠인 사람이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지만, 요즘은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누가 보아도 오타쿠가 아닌 사람이 자신을 오타쿠라고 말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 정말이지 당혹스럽다. 개인이 말하는 성적 지향 또한 반드시 그의 실제 성적 지향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불일치에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부정하려는 마음가짐이 아니더라도, 못 알아들을 테니까, 설명이 귀찮아서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일반인 코스프레가 있으면 리아주도 있는 것이겠다.

이러한 일련의 불일치들의 가능성은, 누군가가 자신의 성적 지향이 이렇다고 해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이것을 “믿을 수 없다”거나 “의심스럽다” 같은 표현으로 나타내게 되면 마치 불일치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여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스스로를 무성애자라고 하는 여성에게, 무성애자로의 정체화가 성적 억압을 내면화하는 것을 염려하여 신중함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무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이 무성애자로 정체화하지 않고, 또한 무성애자가 아닌데도 무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들이 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 가벼운 정체화를 추구하고 실수와 탐색을 허용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이롭다. 신중해져야 한다는 요구는, 요구의 의도와는 반대로 사람들이 한번 선택한 정체화를 반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4. 선택은 누구의 몫

성적 지향에 있어, “나는 내가 정한다”는 말은 본디 “나를 무엇으로 정체화할지는 내가 정한다”를 의미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 말이 자신의 성적 지향 마그넷 자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양 받아들여곤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무성애가 하나의 엄연한 성적 지향임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성적 지향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성애는 선택이 아니지만, 나는 내가 정한다”와

같은 직관적이지 못한 문장을 사용하며 자신의 성적 지향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것은, 이처럼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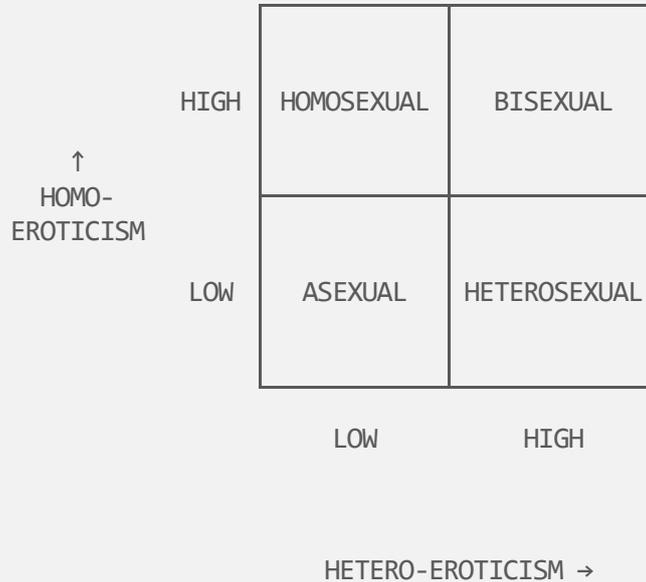
어떤 사람들은 종교나 취향을 언급하면서 무성애가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이들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 무성애는 정의상 성적 지향의 하나이므로 굳이 무성애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더라도 존중하겠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다. 무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를 말하는 이유는 <무성애자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성적 지향을 자신이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무성애는 엄연히 실존하는 성적 지향이다>를 말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무엇이든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공포하려는 욕망을 내세워, 무성애가 성적 지향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경박한 일이다.

“나는 내가 정해야만 한다”는 식의 당사자성에 대한 강박은 때때로 <과학적 증명>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곤 한다. 과학적 증명이란 곧 무성애가 하나의 성적 지향이며, 다른 성적 지향들과 구분되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 작업을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성애가 성적 지향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들은 무성애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무성애의 존재를 왜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고는 하는데, 하나만 하자. 보이지 않는 마그넷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론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5. 성적 지향의 2차원 모형: 오타쿠 에디션

한편 일각에서는 <무성애>를 <비피성연>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자는 주장이 제안된 바 있다. 이 주장의 주된 이유로는 무성애가 다른 성적 지향들과 상호 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지 않기 때문에 무성애를 하나의 독립적인 성적 지향 카테고리 볼 수 없음이 제시된다. <무성애는 제 4의 성적 지향 카테고리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동시에 어떤 무성애자들은, 무성애는 제 4의 성적 지향 카테고리가 아니라고 하며, 무성애는 무성애-유성애 좌표계의 한쪽 극한에 위치하는 개념임을 설명하고는 한다. <비피성연>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제안된 용어이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와 같은 <-성애> 접미사를 포함한 용어들은 성적 지향의 카테고리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무성애는 하나의 독립적인 성적 지향 카테고리 볼 수 없으므로 <-성애> 접미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해당 주장의 요점이다.

그러나, <무성애는 제 4의 성적 지향 카테고리다>라는 서술과 <무성애는 무성애-유성애 좌표계의 한쪽 극한에 위치하는 개념이다>라는 서술은, 엄밀하게는 양립 불가능하지는 않다. 잠시 다음의 그래프를 살펴보자.



위 그래프는 심리학자 Storms가 1980년도에 제안한 것으로, 동성 및 이성애에 대한 성적 끌림을 2개의 축으로 삼아 성적 지향을 모형화한 것이다.¹ 좌표축의 왼쪽 위부터 보면, 좌표축의 (0,1)에는 <동성애>가, 좌표축의 (1,1)에는 <양성애>가, 좌표축의 (1,0)에는 <이성애>가 자리하고 있어 성적 지향의 3개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좌표축의 (0,0)에는 <무성애>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무성애가 가진 <전반적 성적 끌림 낮음>이라는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무성애가 4번째 카테고리이기도 함을 나타낸다. 어떤 좌표에 있는 마그넷의 성적 끌림의 강도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와 같다.

이런 이유에서 기존의 <무성애-유성애> 좌표축을 “비피성연-피성연” 좌표축으로 바꾸어 불러야만 할 필요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성애>나 <동성애> 또한 서로 완벽히 상호배타적인 카테고리가 아니다. 이미 남성의 동성애와 여성의 이성애가 <남성애 있음>과 <여성애 없음>이라는 공통 요소를 공유하며, 양성애를 성적 지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어떤 성적 지향 카테고리가 고유한 것으로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 다른 성적 지향 카테고리들과 완벽히 배타적인 개념일 필요는 없다.

¹ Storms, M. D. (1980). Theories of sexual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5), 783.

무성애가 하나의 성적 지향이듯, 양성애도 하나의 성적 지향이다. 양성애를 주제로 그려진 여러 비율로 구성된 파이 차트 그림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이 그림은 이성애 30%에 동성애 70%인 경우, 이성애 70%에 동성애 30%인 경우 모두가 양성애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어떤 그림에서는 바닐라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그려놓고, 양성애는 믹스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딸기 아이스크림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두 관점의 그림 모두 각주²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한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인가? 전자는 양성애를 믹스 아이스크림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 두 설명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성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먼저, 어떤 양성애대법관들은 양성애는 하나의 고유한 성적 지향 카테고리가 아니며, “동성애자가 되다가 만” 불완전한 성향이라고 잘못 생각하고는 한다. <양성애는 믹스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딸기 아이스크림과 같다>는 관점은 이에 대한 반박이다. 양성애라는 카테고리는 더 세부적인 요소로 분해할 수 없다는 논지의 반박이 아니라, 고유성을 부정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박인 것이다. 이것은 오타쿠의 눈에 마치 “잡덕은 덕이 아니다”라는 주장과도 같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어떤 성적 지향 카테고리가 고유한 것으로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 다른 성적 지향 카테고리들과 완벽히 배타적일 필요는 없다.

또한 어떤 양성애대법관들은, 누군가가 양성애자이기 위해서는 동성애와 이성애 성향을 정확히 50%씩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잘못 생각하며, 하나의 비율이 더 높다면 양성애자일 수 없다고 잘못 생각한다. <이성애 30%에 동성애 70%인 경우, 이성애 70%에 동성애 30%인 경우 모두가 양성애에 해당한다>는 관점은 이에 대한 반박이다. 이것은 오타쿠의 눈에 “가끔 파는 장르는 판다고 해서 안된다”는 주장과도 같다. 소비덕과 생산덕, 코어덕과 라이트덕의 문제로 고민해온 오타쿠들은 이러한 양성애대법관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의 용어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들 용어는 젠더 이분법을 가정하고 있었던 과거에 만들어진 용어이다. 남자가 자신의 남성애를 지칭할 때 <동성애>를, 여자가 자신의 남성애를 지칭할 때 <이성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직 두 종류의 젠더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² Borges, A. (2015). 13 Charts That Are Way Too Real For Bisexual Women. *Buzzfeed*. Retrieved from <https://www.buzzfeed.com/annaborges/pie-chart-bi-chart/>

그러나 현대적 관점에서는 젠더에는 2개 이상의 종류가 있다고 보며, 젠더가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사람들은 <동성애>나 <이성애> 같은 기존의 용어로는 자신을 표현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행히, 우리는 남자의 동성애와 여자의 이성애가 <남성에 있음>이라는 공통적인 요소를 공유함을 안다. 또한, 남자의 동성애와 여자의 이성애를 <남성에>라고 표현하는 것이 <동성애>나 <이성애>라는 성적 지향 카테고리의 고유함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없음을 안다. 어떤 성적 지향 카테고리가 고유한 것으로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 다른 성적 지향 카테고리들과 완벽히 배타적인 개념일 필요는 없다. 이는 양성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관점은 여러 뇌과학 연구 결과로도 뒷받침된다. 안드로스타디에논(androstadienone)이라는 페로몬계 화학물질 자극에 대해, 남자 동성애자와 여자 이성애자는 뇌에서 성행동 신호의 처리를 담당하는 전시상하부(anterior hypothalamus)가 활성화된 반면, 남자 이성애자는 일반적 냄새 신호의 처리를 담당하는 후각뇌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³ 마치 (쿵척) 마그넷처럼 말이다. 마찬가지로, 에스트라테트라에놀(estratetraenol) 자극에 대해, 여자 동성애자와 남자 이성애자는 뇌에서 성행동 신호의 처리를 담당하는 전시상하부(anterior hypothalamus)가 활성화된 반면, 여자 이성애자는 일반적 냄새 신호의 처리를 담당하는 후각뇌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⁴ 여러 성적 지향을 동성애, 이성애가 아닌 남성애, 여성애로 보는 관점은, 적어도 동성애와 이성애에 대해서는 타당함이 입증된 사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양성애는 여러 성적 지향 요소 중 두 가지 이상의 성적 지향 요소를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간결하다. 성적 지향을 성적 지향 요소로서 이해하는 것은 여러 이점이 있는데, 첫째로는 성적 지향이 하나의 온전한 성적 지향이기 위해 다른 성적 지향들과 상호 배타적일 필요가 없음을 고려한다는 이점이 있으며, 둘째로는 무성애를 비롯한 여러 성적 지향들을 하나의 통합적인 관점 아래 이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³ Savic, I., Berglund, H., & Lindström, P. (2005). Brain response to putative pheromones in homosexual me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2(20), 7356–7361.

⁴ Berglund, H., Lindström, P., & Savic, I. (2006). Brain response to putative pheromones in lesbian wome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3(21), 8269–8274.

단, 성적 지향 카테고리들을 성적 지향 요소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성애와 이성애를 남성애와 여성애로 재정의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는 여러 장점이 있다. 1) 젠더 이분법을 가정하지 않는다. 2) 적어도 이성애와 동성애에 대해, 입증된 사실이다. 3) 남성애와 여성애를 성적 지향의 요소로 삼으면 필요한 만큼 요소를 더 추가할 수 있다.

현재까지 관련된 화학물질이 알려진 2개의 성적 지향 요소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⁵ 가로축은 자신의 마그넷이 여성에게 성적으로 이끌리는 정도를 말하며, 세로축은 남성에게 성적으로 이끌리는 정도를 말한다. 자신의 마그넷은 어디쯤에 있는지 찾아보자. 이 관점이 널리 사용되었으면 한다.



⁵ butterfly: "Vectors - Butterflies" by Kowia, <http://kowia.deviantart.com/art/Vectors-Butterflies-519067044>